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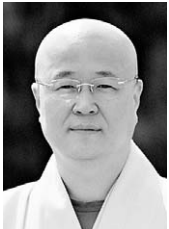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는?

오피니언 리더 8인에게 묻다

8월 27일 2000만 불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범불교도대회가 20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종교편향 종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열린 대회는 불자들의 응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과 종교편향 사건 예방을 위해 불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불교계 오피니언리더 8인에게 범불교도대회 소감과 향후 전망,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종교차별 해결때까지 결집된 의지 보여야”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중호 스님



이명박 대통령이 원인이니 문제해결도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불자들 모두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그치지 말고, 일관된 의지로 결집해 행동해야 한다.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목소리만큼 불교계 자성의 소리도 키워야 한다. 종교편향 종식 노력만큼, 불교계 내부 제도 개선과 불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불교도 사회현안에 목소리 내야”

손안식 종교평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불교는 스님, 신도 상관없이 사회 각 현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관망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지역 각 사찰과 신도회도 이번 대회로 활동을 그치지 않고, 연대를 강화해 지역 범불교도대회 등 활동에 나서야 한다.

“상설기구 설립, 모니터링 감시활동 필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그 동안의 종교편향 등 종교·사회문제는 불자들부터 의식화 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불자들은 모이고 나섰어야 했다. 상설기구 설립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에게 종교문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대정부활동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구체적 대안 없으면 불자들 또 나설 것”

대한불교청년회 박범수 회장



불자들은 불교소외와 조그마한 권력으로부터의 이득이라는 작고 속 좁은 생각을 던지고 만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참 보살로 거듭 정진해야 한다. 정부도 2000만 불자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촛불이 광명의 등불이 되어 국민저항의 중심에 불교계가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재불사로 불자 사회지도자 육성해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불교적 사상과 실천의지를 가진 인재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그릇된 생각과 편향된 행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며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

“권역별로 불자들 규탄의지 보여야”

조계종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한 번의 범불교도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반응에 맞춰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불교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로 지속적인 행동을 펼쳐야 한다. 포교사단도 종단 외호단체로서 종단 결의에 따라 여법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대화와 소통 통해 국민화합 이루자”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그 동안 관용이라는 말로 사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불교에 대한 참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원을 하는 '범불교도대회'였다. 불자들은 이제부터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깨어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종교차별과 종교강요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오만한 태도 변할 때까지 투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회장



전국의 20만 불자들이 모여 장엄하고도 놀라운 대회를 펼쳤음에도 정부의 오만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범불교도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8월 27일로 부족하다면 10월 3일에도 모이고 그 이후에도 모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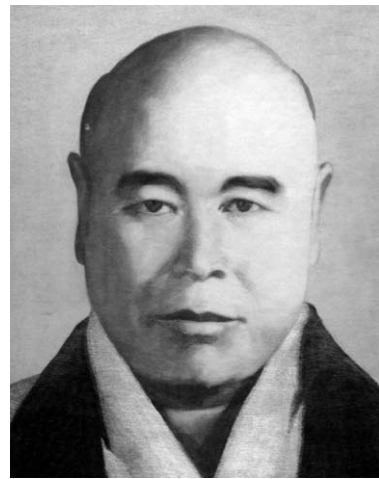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8> 금오 대선사

1959년 8월로 생각된다. 오대산 선원을 나와 강릉포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주문진 일대를 돌면서 탁발, 양양 낙산사로 갔다. 낙산에는 며칠전 총무원장을 그만 두고 잠깐 들리셨다는 금오 대화상이 앉아 계셨다. “어디서 왔느냐?” “상원사에서 왔습니다.” “한 소식 얻었느냐?” “천산은 반야봉이고, 만강은 보리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더냐?” “비로자나 부처님은 초소가 없으나,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일으킵니다.” “장하다. 나이 어린 사람이 선(禪)을 하구나. 나는 선자가 든 말만 하는 사람도 내 할아 버지처럼 받든다.” 하시고, 원주를 불러 따로 방 하나를 주라 하셨다. 당

돌능엄이지. 이리 씹어도 안 되고, 저리 씹어도 안 되고, 늙은 이 뺨이 다 빠진 뒤에야 비로소 그 돌 맛을 알게 되지.” “묘한 마음은 애초부터 움직이지 아니 했는데, 아난존자가 억겁의 전도상 때문에 마등가의 사랑에 걸려 하마터면 생사에 빠질 뻔한 것을 부처님께서 7처징신



사에게 출가하여 범어사에서 계를 받고, 월정사, 통도사 보광선원을 거쳐 예산 보덕사 보월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건당식도 하기 전에 법사스님께서 입적하자 노스님이신 만공 대선사께서 대신 건당식을 해주었다.

“덕승산 아래 무늬 없는 도장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보월은 계수나무에서 내리고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

이것이 만공 스님의 전법계(傳法偈)이다. 그 뒤 태안 안면도 백사장에서 몇 명의 수좌들과 함께 결사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가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 1년 동안 시봉하였다.

1935년 김철 직지사 조실을 시작으로 안면 석광사, 도봉산 망월사, 지리산 칠불선원, 서울 선학원 조실·회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날아간다” ... 만공 스님 맥 이어 “아무리 뿌리를 찾아보아도 역시 없고 없을 뿐이로다”

시 낙산사는 미군부대 사람들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쟁 고아들이 많았는데, 법당일 보는 주지스님 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세벽에불부터 도량석을 한 후 종성을 하고 예불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옛 가람의 풍습이 되 돌아온 것 같다고 좋아하였다. 이튿날 흥련암에서 기도하기를 청하니 흥련암 주지는 영혈사 주지가 곁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의논하라 하였다.

3·7일 동안 기도하고 오니 설악산 신봉사에 들렀다 다시 왔다는 스님께서 물었다.

“관세음보살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능엄경> 25원통(圓通)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능엄경>이야말로 차

(七處徵心: 일곱 곳에서 마음을 찾는다)으로 견져 주시니 억겁의 전도상이 일시에 무상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장하구먼. 자네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저 불쌍한 애들을 보살펴주게. 나는 내일 아침 서울로 갔다가 수원 용주사로 떠나게 되니, 혹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세.” 하고 이별하였다.

그 스님은 큰 부자인 장자처럼 풍채가 든든하고 솔직 담박하게 보여 행정승 같지는 않았다. 듣는데 스님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성은 동래 정씨이고, 이름은 태선이였다 한다. 어머니 조씨가 꿈에 학을 보고 낳았다는데, 아버지 용보씨는 서숙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아무래도 저 늙은 내 자식 같지가 않아”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16세 때 마하연 도암 선

주를 지내면서 후배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월산, 범행, 월남, 판성, 혜정, 월탄 등 눈썹은 남자 50여 명을 배출시키고 조계종 부종정, 봉은사 주지, 구례 화엄사, 속리산 법주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1928년 보월 스님께 바친 “투출사방계(透十方界; 사방세계를 철저히 꿰뚫으니) 무무무역무(無無無亦無; 없음과 없음의 없음이 또한 없구나) 개개지차이(個個只此爾; 날날이 모두 그러하기에) 막본역무무(原本亦無無; 아무리 뿌리를 찾아보아도 역시 없고 없을 뿐이로다)”는 스님의 오도송이다.

그물을 벗어난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태평양, 대서양 그 어느 곳에 가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자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자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전수 - 치유
- 신침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통향아리 불부항전문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5
서울지사(9월 개원예정)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트림프필드 102동 510호 ☎ 02)795-7075
본부장 - 현오 합장 010-3056-3315
지사장 - 혜진 합장 010-7508-3315
실 장 - 혜성 합장 010-7509-3315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 월요일은 쉽니다.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